

###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계율의 제정과 정신

종교윤리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규범윤리이며, 다른 하나는 응용윤리이다. 서두에서 종교윤리를 언급하는 것은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이다. 계율이란 종교윤리에서는 규범윤리에 속하는 것이며, 윤리의 정합성을 논하기 이전에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규범윤리에 속하는 계율은 세분하면 개인에 관한 조항과 단체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에 관한 것을 계(戒)라 하며, 단체에 관한 것을 율(律)이라 한다. 결국 개인적인 규범과 단체의 규범이 합하여 계율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5계, 10선계, 8계계 등은 모두 개인적인 규범이며, 기타 교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항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된 조항 등은 모두 단체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족계라는 것은 비구와 비구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 근본정신은 경계와 제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요익중생계나 정법호지계(正法護持戒)는 계와 율의 어디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 중생을 이익되게

맞지 않거나 수행이나 화합에 방해물이 되는 조항은 언제든지 교단의 합의에 의해 폐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도 아난에게 '소소한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소소한 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법에 상응하지 않고, 깨달음에 상응하지 않고,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상응하지 않는 것은 필요에 따라 없앨 수 있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계율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계율의 제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기에 부처님께서 언급하지 못했던 사회악이나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단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계율 조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범람하는 담배, 사이버테러, 사이버 매매춘, 인종차별, 몰래 카메라, 도청 등 많은 사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세삼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계율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분율>권1에 나오는 것이며, 전문적으로는 계율제정의 열가지 정당성이란 의미의 십구의(十句義)라 부르

#### 전법과정서 사안 생길때마다 제정

#### 폐지·신설등 시대변화에 부응 필요

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개인적인 규범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단체의 규범으로 보아야 하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어느 쪽으로든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계와 율과는 다른 입장이 있다는 점을 간파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승불교의 계율들은 그 성격상 종교윤리의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응용윤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생을 유익하게 한다든가 혹은 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둔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단이나 불교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성격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정의, 평화, 반배, 인권 등은 모두 요익중생이나 정법호지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이 바로 응용윤리에서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교윤리, 즉 계율은 신이나 다른 궁극적 절대자에 의해 제정된 것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제정된 것이다. 이것은 계율이 가장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대정신에

는 것이다. 첫째는 대중의 통솔을 위해서이다. 제자가 많아지자 수행자의 근본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했다. 둘째는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산하며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불협화음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대중의 인락을 위해서, 넷째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섯째는 집합한 사람들의 인락을 위해, 여섯 번째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입문시키기 위해, 일곱 번째 입문자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여덟째 현재의 번뇌를 끊도록 하기 위해, 아홉 번째 후세의 욕망을 끊기 위해, 열 번째 정법이 영원히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대와 공간이 달라지면 그 정신은 살리되 현실성이 없거나 앞으로 계율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것들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가장 비불교적인 행태라 본다. 현재 동북아불교 역시 자연환경 내지 문화적 차이에 의해 지키지 않고 사문화된 계율이 많다. 계율 정신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남다른 구도열정으로 정진일로를 걸어온 성수스님은 후학지도에도 각별한 정을 쏟는다.

‘천하만물이 무비선(無非非)이요, 천하만상은 무비도(無非道)이니라’

선(禪)의 세계는 부처님의 것도 중생의 것도 아닙니다. 선(善), 악(惡), 생(生), 멸(滅)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선의 세계입니다. 선을 알게 되면 밤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졸음이 오지 않지요. 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바로 내가 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법은 백천만겁 난조우(百千萬劫難遭難, 백만 겁의 시간을 지내도 만나기 어렵대입니다).

‘생사가 시급한데 누굴 위해서 사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절대 무미산 고개를 넘어가는 불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은 목을 툇 때어 나무에 걸어놓고 탐하고 설쳐야 뭔가 노력하는 대가가 하나 나오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하는 일로는 불법은 고사하고 열반상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성자 이차론의 목에서만 흰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진실로 간절하게 공부하면 흰 피가 납니다. 꼭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불교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물질 북 지지 말고 무가복(無價福,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복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 산승이 무가복을 얻는 방법을 일러줄테니 열반상을 깨달아 그 맛을 보고 한바탕 춤을 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품을 알기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성품을 알려고 하면,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옆에 발을 두르고 그것을 한 번 찾아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발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도를 찾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신물이 나올 정도가 되어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한 말씀은 탐진치(貪瞋癡) 3독(三毒)을 쉬라는 것입니다. 중생심은 전부 욕심으로 생겨나고, 욕심은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중생심을 버리고, 놓고, 쉬어야 합니다. 그게 가지만 다 놓아버리면 그 지리가 바로 극락세계요 열반세계입니다.



지상 백고좌

## 성수스님

(황대선원 조실)

# “간절하게 공부해서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불교의 맛 느끼세요”

### 눈인번 번쩍떠 밝아지면 발길에 채이는 것이 道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진리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해야 결실을 맺을까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인연토를 만나서 싸움 피워야 합니다. 씨앗의 눈이 트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을 만나도 필요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식이 한번 광하고 쳐주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천하의 만물이 선 아닌 게 없고 세상만사가



◀성수스님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 공부할 것을 강조한다.

도 아닌 게 없으니, 발길에 채이는 게 도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짜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노병사 그것 무엇이었니까? 하고 무릎이 닿도록 사정하고, 애원해야 합니다.

나는 출가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부터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 발거량을 다녔어요. 19세 되던 해였을 겁니다. 사흘간 차를 타고 부산 내원사 현직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은 고교 교

장을 지내고 목사가 있다가 출가하신 분이 이었지요. 스님께 대뜸 “도 좀 나눠주세요” 했어요.

### 실크로드 챌린지 참가 안내

**실크로드.**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은 구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1,300여년 전 당나라 현장법사와 신라 해초스님이 걸어 가셨던 그 길을 이제 내자로 직접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교유적과 고도 3천 - 5천m를 넘나드는 고원지대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타클라마칸 사막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는 실크로드 1만 2,000km 대장정, 일반인 최초의 실크로드 탐사에 스님, 불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동참하셔서 1,300여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당시 구법승들의 실체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
- 행사 기간 : 2003년 10월 7일 - 27일(21일간)
- 접수 마감 : 2003년 8월 14일
- 참가 자격 : 4륜구동(4×4)차량 소유자, 차량이 없는 사람은 다른 차에 동승하는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 실크로드 챌린지 사무국 02)535-7973~4

인터넷 주소 [www.silkroad4x4.or.kr](http://www.silkroad4x4.or.kr) 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간(肝)이

간지방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참다슬기 농축액: 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참다슬기 10kg을 본래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참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끓인다. 농축액은 60도 이하로 포장합니다.

② 참다슬기 기름: 참다슬기 15kg을 향아리에 넣고 완겨 97마니를 달은 뒤 향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참다슬기 향겨에 묻어둔 빈 향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참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향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막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무치남을 영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록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면담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뻐승복 직원일동 -

종류	종류	종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삼, 조끼, 바지 W160,000</li> <li>●동방, 바지 W160,000</li> <li>●두루마기 W140,000</li> <li>●W6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직(울 50%)</li> <li>◆광목</li> <li>◆순면(무늬있는 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걸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W130,000. B. W160,000</li> <li>●미 W160,000</li> <li>●모직 W16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단트렌치</li> <li>●저리산형</li> <li>●탈복</li> </ul>

● 20,000 ~ 35,000원

※ 직삼, 가사, 비단 및 기마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대역에 있는 **명부방패방**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세숫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성이 그 어떤 의한 중엄신도 단병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아줍니다. (모든 병약함)
- 무명,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정으로 잠무 이유의 분
- 밤마다 가워놀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빌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 자비정사 영험도량

# 02)3453-3421



◀출·제가를 막론하고 공부지도를 하는 성수스님.

상좌 영주스님이 본 성수 스님

‘수행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산 소리만 하지는 큰스님’ 상좌 영주스님(서울 법수선원 주지)은 성수 큰스님(80, 황대선원 조실)을 이렇게 표현한다.

영주스님은 “은사스님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법거량을 받아주며, 경책하고 탐마하는 법문을 많이 내리신다”며 “실천에서 우러나

이라고 한다. 영주스님은 “답백한 성품의 은사스님은 평생 토굴에서 30~40여 명의 대중들과 함께 오직 수행만 해왔다”고 존경을 표했다. 영주스님이 들려주는 성수스님의 생활원칙은 철저하다. 절대 늙지 말 것, 밥이나 과일 많이 먹지 말 것, 새벽예불에 동참, 휴지사용 최소화, 잡기근절.

‘산 소리’만 하시는 은사... 생활원칙에 철저

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후학들이 정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예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했다.

영주스님은 “큰스님께서 상좌들과 불자들이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가르침의 끝자리는 ‘커나가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명령하면 안된다’는 것. 부족한 점은 스스로 깨달아 자기가 개발해야지 명령을 하게 되면 발달하지 못하고 억제되기 때문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외교부장, 조계사 해인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경남 인위 황석산 황대선원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이 경상도 문둥이 새끼가 필달라는 거야.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도는 안주면서 남의 도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쫓아내셨지요. 그래서 울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스님께서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도는 짓밟고 남의 도만 금공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내가 23살 때였어요. 당시 64세로 해인사 조실 이시번 효봉 큰스님을 무자정 찾아갔지요. 그런데 대중 스님들이 막아서요. 아직은 큰스님을 친견할 만큼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다.

그때더니 효봉 스님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방안에 들어가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심해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심을 합니까’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도를 알려고 왔소. 도는 집에 있는데 왜 왔소?”라고 말씀하세요.

한참을 있다가 스님께서 “7일간 시간을 줄 테니 글을 써와라”해서 글을 써왔어요.

그것을 보고 효봉 스님이 ‘인장 찍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이놈새끼 니가 나를 살릴래 죽일래’ 하며 어찌나 호통을 치시던지...

조실 방에서 물러나와 3일간 머리에서 열이나 쫓아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현재 백양사 방장 서용 큰 스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밥을 입에 넣어주시는데 아무리 해도 안넣어 가요. 6일 만에 일어났지요.

그 뒤로 하루에 열 번씩 조실 방에 들어갔지만 효봉 스님은 끝내 입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한달이 지나 산중법회가 열렸어요. 법석에 오른 효봉 스님은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저 부처를 숭배하고 끌어오서 대중공양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10분 있다가 다시 말씀하시길 ‘맛이 어떠냐?’

그런데 대중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효봉 스님께서 법석에서 내려오시더니 주장자를 흔들며 ‘시주밥 인연도 못맺었다고. 다가가’라고 호통치셨습니다.

대중들이 혼비백산했지만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자 스님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큰스님께 “대중은 모르니 효봉 당신이 대답해 주시요”하자 스님께서 호랑하게 웃으셨습다.

불자님들! 절이 뭐하는 곳입니까. 내가 왜 절에 오는지 알아야 해요. 그것을 모르면 헛것입니다. 부처님이 쉽게 삶의 이치를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사는 것은 어려서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법당에 과일이나 밥 달라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절에 와서 밥 한 그릇 올리고 복달하는 사람들이

난단 곱백해도 의미를 알아 인식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맘의 알맹이를 척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해야 합니다.

불교가 융성하려면 불자들이 공부할 열심해야 합니다. 우리 불법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20년, 30년, 60년을 살아도 내가 뭘하고 있는지, 누군지도 모른다면 삶을 헛산 것입니다.

보살과 처사들의 도가 험철 넘쳐나는 사자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생각하고를 넘겨야 하면 천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백과 용기와 분심이 충만해야 합니다.

나와 내가 만나면 딸이 어머니 만나는 것보다, 아들이 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그렇게 좋고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다른 물질 환경에만 끌리고 팔려서 허덕허덕하다가 진흙탕에 빠지면 어느 누가 건져 주겠습니까?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살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존유시경(徐是鏡, 한 치 그림자의 움직임도 다 틀만하다)입니다. 원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 진리인 무상계(無相界, 영원불변한 깨달음의 세계를 떠 발견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법을 그대로 실천 수행하면 현재 이대로가 극락세계가 되고,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 마음이 어지럽고 흐트러지면 곧 지옥이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마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무를을 치면 산과 들이 모두 내 것처럼 반갑고 청이 술술 나옵니다.

‘영축산에 용이 없으니 금개구리가 판을 치네’ 정리=김철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상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심을...”

“도는 집에 있는데 왜 왔소?”

왜그리 많아요. 사찰에 물릴보시만 하면 삼생의 원수가 됩니다.

옛날 중국의 양무제가 절을 수천 개를 짓고 금탑을 여러 군데 쌓고 했는데도 탐마대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였습다.

그러자 양무제가 ‘중국 천하에 절을 많이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탐마대사께 물으니가 ‘소무공덕(所無功德)’이라 했어요. 터럭 만한 공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열반상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효 대사 말씀에 ‘을 때는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니 진짜 가져갈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일생에 잘못된 일을 짓고 간다.’ 했습니다.



지록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법정스님의 ‘어린 누이에게’란 글이 요즘은 빠져 있다. ‘어린 누이에게’ 혹은 ‘무소유’ 등의 글을 읽고 불일암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 또한 신문 잡지에 실린 스님의 글, 수필집이나 경전 번역·해설서 등의 책을 읽고 찾아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어릴때는 수제비를 만들어서 명석을 깔고 풀밭에서 참배객들과 먹는 재미도 있었다. 물론 수제비를 만드는 일은 내 몫이다.

스님은 딱공 도구를 잘 갖추고 계신다. 전각도 100여 점 갖고 있다. 대개가 석정(石鼎)스님, 수안(殊眠)스님, 무용(無用)거사, 그리고 내가 해 드린 스님의 전각 작품들이다. 스님의 심미안(審美眼)이 예사롭지 않다. 전각을 완성해서 보여드리면 차를 마시면서 평을 하신다.

“어긴 공간처리가 어색해, 칼 맛은 나는구먼!” 그리고는 밑그림 디자인을 직접 해 보이실 때



그림·문병성

도 있다. “불일암 전각은 부처, 해, 양자를 그림으로 그려 놓고 해 봐요.”

그리고 보니 ‘불(佛) 일(日) 암(庵)’이다. 길이 세 지 크기의 이 불일암 낙관은 나의 인보(印譜)에 들어 있다.

불일암 한쪽 벽에 걸려있는 ‘살어리 살어리맛다’ 현판은 스님이 직접 목각한 작품이다. 문인서화 전시장에서 스님이 감상하면서 살펴보시는 눈이 높았는데 한때 부채에 그려주신 그림들은 그런 수준에서 나왔을 것이다.

차도구, 죽비 등도 스님이 손수 만드신다. 이제 법정스님이 나에 대해 자랑하신 이야기를 할 차례다. 중생은 입을 열면 남의 함담이 아닌 내 제 자랑뿐이려만가.

“지록 수좌에게는 내가 못 따라가는 세 가지가 있어.”

“지록 수좌는 청전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그래서 일을 시키기가 수월해.” 하신

다. 칭찬을 받으면 의기양양해서 잠시 몸을 잊는다. 하하, 팔풍(八風)이 불어도 끄떡없이야 하는 처지에 청전에 흔들리다니...

법정스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각이다. 스님도 전각을 조금 하시지만 보는 눈만 있으신 편이다. 내가 처음에는 백석(白石)용 풍의, 속속 밀어붙이기식 칼집을 즐겼다가 오창석(吳昌鎬) 풍으로 돌아오기까지 법정스님이 곁에서 지켜보시고 늘 청전을 해 주셨다.

둘째는 수제비이다. 수제비를 시키기 전에 스님은 말씀하신다. 소금과 밀가루, 단 두가지로 수제비를 만들라고 해도 거뜬히 해내는 건 지록 수좌 뿐이라고.

셋째는 들깨단 썩기다. 규격 둘을 썩기 보다 잡석을 썩기가 힘들다. 스님은 나의 들 썩는 일에 이름을 붙인다.

“지록 수좌의 특수공법!” 이십 여 년이 지나도 불일암을 올라가는 층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맨 위의 16 계단은 길이 바뀌지면서 사라졌고 나머지는 여전히다.

들 썩는 일에 빠져있을 때에 나는 경험하였다. 밤낮으로 나는 들을 쌓고 있었다. 눈을 감고 누워

전각 일가견...불일암 현판 직접목각

차도구·죽비등도 손수 만들어 사용

도 여전히 들을 쌓았다. 피곤했지만 들 지계를 지고 일을 쉬었이 하였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들을 쌓고 있었다.

만일 누가 나의 들 쌓는 일을 그만 두라고 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느새 들썩기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뒷날 생각해보니 그제 삼매(三昧)였으며, 마치 화두 공부에서 화두와 수행자가 하나인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열반한 휴암(休庵)스님이 풀썩기에 여념이 없는데 나를 두고 법정스님께 말하였다.

“하, 처음 봤어요. 밤에 불까지 켜놓고 산길에서 들을 쌓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일에 재미붙인 지록 수좌 외에는.”

세월이 무상하다. 이야기할 꺼내다가 문득 휴암 스님 이야기에 와서 정해진다. 불일암에서 수제비를 먹고 크게 웃으시면 모습이 생생하다.

선사 선량 열중이셨던 휴암 스님은 선적(禪寂) 여가에 불일암에 올라와 법정스님과 담론하기를 즐겼다. 스님 역시 지인(知人)의 한 사람으로 맞이들어 오가는 세상사며 선사 일화들을 조용히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한 폭의 신선도(神仙圖)였다.

■ 송광사

당뇨 다운 밸런스.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당뇨 밸런스 90mg cap 90 cap x 9월 1개월분 150,000원. 당뇨 밸런스 90mg cap 90 cap x 9월 1개월분 150,000원. 당뇨 밸런스 90mg cap 90 cap x 9월 1개월분 150,000원.

귀신은 속어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신도님들의 사주상당시에 <용신 잡는법> 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팠습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명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름 습득하는데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 뺄셈, 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 가 될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을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능인선원에서 행자님을 모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스님들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영사, 동통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 맞게 함께 정진하신 행자님을 모집한다. 큰 뜻을 머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게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머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소정의 수행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원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대학원등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포교를 원하시거나 외국진출에 뜻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자신의 역량에 따라 작곡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스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 포교를 원하시거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모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능력과 원력에 따라서 일정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지정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연. 세백 많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영민 여승을 바람을 잡이치고 묵묵을 두들기며 서을 시내 지 하행여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 연으로 행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한 지하행을 4바퀴 돌 틈에 보급하는 이 달마도를 만들고 그림의 적된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출가 지정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면 중 지정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입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출현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에 일반 여정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계 위기 때에는 안양외 (00)파트를 지어 놓고 봉양을 못해 부도 직면이 이후 수월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봉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방앗간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종로에대 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려서 지정보살님께 '이 평의 병환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도의 사의 원력으로 맺어날 수 있고 그(들)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